

소년범죄 갈수록 흉포화... 촉법소년 대책 시급

넷플릭스 '소년심판' 계기 큰 관심

강·절도 등 어른 뺨치는 범죄
"14세 기준 더 낮춰야" 목소리
처벌에 초점 맞춘 현행법
예방·재범방지 시스템 강화를

넷플릭스에서 방영중인 '소년심판'을 계기로 국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드라마가 지적하는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재범 증가 등에 따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소년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이 아닌 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소년심판' 드라마 속 판사는 소년법을 다루며 "성매매, 사기, 절도, 폭행, 중환선 물세트"라고 지적한다. 현실도 다르지 않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경우 무면허·뺑소니, 강·절도, 보이시피싱, 성매수, 공갈 등으로, 성인범죄 못지 않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촉법소년들은 2017년 205명에서 246명(2018년)→280명(2019년)→420명(2020년)으로 매년 급증했다. 전남지역에서도 2017년 198명에서 212명(2018년)→301명(2019년)→345명(2020년)까지 늘었다.

범죄 유형도 차량 탈이 등 절도와 무면허 운전, 뺑소니를 비롯, 보험사기·보이스피싱·성매수 공갈 등 어른 범죄 뺨칠 정도로 대담하고 다양하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당장, 촉법소년의 연령 상향선을 낮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만 지난달 6건에 달했다. 대선후보들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고쳐야 한다는 공약을 줄줄이 내놓은 상태다. 국회에 계류중인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안도 ▲소년의 연령 상향선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 ▲소년범에게 예외적으로 완화된 형량을 일부 상향하는 개정안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기간을 현행 최대 2년·4년, 10년 등으로 늘리는 법안 등이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드라마 '소년심판' 속 소년법 전문가로 나오는 부장판사는 "문제는 법이 아니라, 시스템이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속적으로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다. 광주지역 소년범죄 재범률은 2018년 41.5%→2019년 40.1%→2020년 39.6%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재범을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1011명→1013명

마지막 TV토론 손 잡은 대선 후보들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043명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2018년 32.8%(재범 소년범 646명)→2019년 33%(/ 717명)→2020년 39.2%(/ 966명)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화·사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반론이다. 소년범죄의 경우 예방과 재범방지 및 소년보호주의가 핵심이라는 점에서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낙인효과'로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차단되는 악화도 발생한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되는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소년범죄 전반에 엄벌주의를 적용하는 건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에 중심을 두어야 할 어른들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소년범죄에 관한 국가 사회적 인프라 부족과 시스템 개선을 먼저 진행하고 유연한 처벌을 적용하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교육이사 박철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 상황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일률적인 강화보다는 심각한 강력범죄에 한해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유연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하루 1만명대 확진

초중고 개학 후 2주째부터 학교발 감염도 급증할 듯

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광주·전남에서 이들 연속 일일 신규 확진자 1만명대를 기록했다.

느슨해진 방역 조치와 초·중·고교 개학까지 겹치면서 조만간 대규모의 지역사회 감염이 덮칠 것으로 우려돼 개인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옆집에 달린 격벽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셀 가능성이 있는 'BA.2' 변이의 국내 점유율마저 높아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광주 6439명, 전남 4600명 등 1만1039명이 신규 확진됐다. 밤 12시까지 야간집계가 남았지만, 광주·전남을 합쳐 처음으로 1만명대를 기록했던 지난 1일 확진자 수(1만255명)를 뛰어 넘었다.

병원, 요양병원, 복지시설 등 취약 시설 집단 감염이 이어졌지만, 대부분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이거나 그 접촉자였다.

전남에서는 목포 952명, 여수 717명, 순천 715명, 나주 446명, 무안 311명, 광양 244명, 화순

181명, 영암 108명, 강진 103명 등 22개 시·군·구에서 9곳에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22만명(21만9241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다. 오는 9일께 23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1주일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앞서 연구기관들은 오는 6월~15일 사이에 하루 18만2000~35만4000명 규모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일단 전국 초·중·고교 개학을 맞아 대면 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개학 후 2~3주 이후인 이달 중순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확진자 급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오미크론의 세부계통인 BA.2는 변이 종류가 잘 구별되지 않아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데, 전염력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BA.1)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이 나오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국가균형발전 활력될 것"

문 대통령, 입학식 영상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나주에 자리잡은 한국에너지공대 제1회 입학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국정철학이 담겨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열기 위해 나주를 혁신도시로 지정했고 광주·전남이 힘을 합쳐 '빛가람 혁신도시'를 완성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에 더해 세계 최대의 신안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는 등) 서남해안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으로 에너지 인공지능(AI), 에너지 신소재, 수소 에너지, 차세대 그리드, 환경기후 기술 등 5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 이어 한국에너지공대의 두번째 목표로 미래 에너지 국가로의 도약에 있어 핵심 동력 역할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광주·전남은 기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망라하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중심이 됐다.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의 도약에 있어 한국에너지공대가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에너지 기술력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수소차와 2차전지처럼 앞서가는 분야도 적지 않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달라. 정부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흥재의 세상만사 '... 마지막 노래' ▶2면

광주에서 장례식 4일장 늘어난 까닭은? ▶6면



KIA 소크라테스 오늘 삼성전 첫 출전 ▶18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간형 인삼 사포닌 A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20%, 주름 -25.9% 인체시험 실험 결과(4주 후 사용 결과)(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2021년 05월 05일